

# 부산외대, 학생부만으로 뽑는 ‘일반고종합전형’ 주목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는 소통 전문가’를 인재상으로 삼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2022학년도 수시모집에 면접과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고 종합전형을 신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외대는 수시모집에 정원 내 모집인원 1천660명의 93.5%인 1천 551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학생부와 면접, 실기성적 반영 방법에 따라 크게 ▲ 학생부교과위주전형 ▲ 학생부종합전형(2022학년도 신설) ▲ 면접위주전형 ▲ 실기위주전형으로 나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학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일반고교과)전형이 676명,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과)전형이 100명, 학생부교과(다문화 및 사회기여배려대상자)전형이 60명이다. 학생부 교과성적과 면접이 반영되는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면접)전형으로 369명을 모집한다. 특히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일반고 종합)전형을 신설해 233명을 모집한다.

또 어학성적을 100% 반영하는 실기/실적(외국어능력우수자)전형으로 74명, 학생부와 면접, 경기실적 점수를 반영하는 실기/실적(체육경기실적우수자)전형으로 11명, 학생부 교과성적과 실기점수를 반영하는 실기/실적(체육실기우수자)전형으로 28명을 선발한다.

이외에도 정원 외 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를 비롯해 특성화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기타(재외국민) 전형을 통해 131명을 선발한다. 부산외대가 이번에 도입한 일반고종합전형은 학생 개인의 역량과 적성,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2022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에서 일반고교과전형(676명), 글로벌인재면접전형(369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인 233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한다.

일반고종합전형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는 소통 전문가’를 인재상으로 두고 인성(30%), 학업 역량(30%),



1, 2 부산외대 캠퍼스

발전 가능성(40%)을 정성적 종합 평가한다.

인성영역에서는 소통·협업 능력을 평가 요소로 두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고 표현하는 개방적 태도,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적 태도, 봉사활동의 진정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학업역량영역에서는 학업태도와 학업 의지를 평가 요소로 보고 학업에 대한 흥미 및 주도적 노력, 수업 시간의 적극적 참여, 학업 성취도, 무단결석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발전가능성영역에서는 경험의 다양성과 자기주도성을 평가 요소로 두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 학교 활동의 적극적 참여, 자기 성장을 위한 자기주도적 노력을 평가한다.

일반고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블라인드 서류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위원 2인이 고교 재학 기간 지원자의 학교생활을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정성적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학습 발달상황의 교과 성적은 정성적으로 반영해 평가한다. ❶

